

REVIEW ARTICLE

의료인에 대한 죽음 교육으로서 영화의 활용

정현채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Death Education for Medical Personnel Utilizing Cinema

Hyun Chae Ju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Seoul, Korea

Death and dying is an ultimate process that every human being must experience. However, in these days we do not like to think or discuss about death and dying. Actually, hatred and denial is the usual feeling when we encounter death and dying. Dying is more than a biological occurrence. It is a human, social, and spiritual event, but the spiritual dimension of patients is too often neglected. Whether death is viewed as a "wall" or as a "door" can have significantly important consequences for how we live our lives. Near death experience is one of the excellent evidences to prove that there should be spiritual component being separated from the human physical body when we experience death. People have called it soul, spirit, or nonlocal consciousness. Caregivers need to recognize and acknowledge the spiritual component of patient care. Learning about death and dying helps us encounter death in ways that are meaningful for our own lives. Among the several learning tools, utilizing cinema with its audio and visual components can be one of the most powerful learning tools in death education. (Korean J Gastroenterol 2012;60:140-148)

Key Words: Death education; Near-death experience; Spirit; Soul; Cinema

서 론

조선 왕실 인장 중에 상우천고(尙友千古)라는 말이 있다. 고전을 읽어 봄으로써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 옛 사람과 친구가 된다는 의미인데, 시대와 공간을 넘어서 이 같은 소통과 만남의 체험은 영화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종합예술인 영화에는 음식, 복장, 주거 형태를 비롯해, 그들이 겪었을 사건들과 무수한 삶의 자취들, 그리고 출생과 죽음과 병듦과 늙음을 겪으며 느꼈을 감정의 결절이 담겨져 있어서, 영화를 통해 우리는 수많은 타인들과 만나고 소통하게 된다.

영화가 이 같이 문화인류사적으로 풍부한 정보를 갖고 있기 때문에, 비판이나 공감을 통한 영화 읽기를 통해 자신을 성찰하고 상처를 치유하는 작업들이 여기저기서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 특히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게 하여 각자 자신에게 주어진 삶의 가치나 존재 이유를 발견하도록 이끌기 위한 웰다잉 교육에서, 영화는 더욱 더 효과적인 매체로 활용될 수 있다.

본 론

1. 의학교육 매체로서의 영화의 활용

의과대학 학생들이 말기 질환으로 임종이 임박한 환자를 보거나 이들의 임종 현장에 참여하는 것은 예비의사로서 대단히 중요한 경험임에도 불구하고, 병실 실습을 하는 의학과 학생의 10-20% 만이 이러한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게 우리 현실이다. 따라서 말기 질환으로 고통받는 환자와 임종을 다룬 영

©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교신저자: 정현채, 110-799, 서울시 종로구 대학로 103,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내과학교실

Correspondence to: Hyun Chae Jung,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103 Daehak-ro, Jongno-gu, Seoul 110-799, Korea. Tel: +82-2-740-8112, Fax: +82-2-743-6701, E-mail: hyunchae@plaza.snu.ac.kr

Financial support: This work was supported by the National Research Foundation of Korea (NRF) Grant funded by the Korea government (MEST) (No. 2012S1A6A3A01033504). Conflict of interest: None.

화를 보게 함으로써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을 어느 정도는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오다기리 조가 주연한 일본 영화 <도쿄타워 Tokyo Tower>¹는 영화의 후반부에서 말기 위암으로 항암 화학요법을 받는 주인공의 어머니를 그리고 있는데, 말기 암의 증상 및 항암 화학요법 시 나타날 수 있는 이상 반응과 임종에 이르는 과정이 잘 묘사되어 있어서, 내과 실습을 나오는 학생들에게 이 영화를 보여줌으로써 상당한 교육적인 효과를 얻고 있다.

2. 죽음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형제 벗이 많다 헌들 어느 누가 내 대신 갈거나 이승의 이 길을 하직하고 저승에 갈라니 내 못가겠다. 일만 하다가 나는 가오. 일만 하다가 갈라고 허니 못 가겠소 못 가겠소. 참말 원통해 못 가겠소.”

이것은 1988년 전남 완도에서 채록된 상엿소리인데,² 죽음은 삶의 일부분이며 마지막 성장의 기회여서 삶을 잘 마무리 해야 한다는 내용은 전혀 없고,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낫다는, 지극히 현실주의적이고 물질주의적인 우리나라 사람들의 가치관을 드러내고 있다.

1995년 6월 29일 삼풍백화점이 붕괴하면서 501명이 사망하였고, 바로 전 해인 1994년 10월 21일에는 성수대교가 끊어지면서 출근하던 직장인과 학생 30여 명이 사망하였다. 사망한 사람 중 어느 누구도 자신이 곧 죽게 되리라는 걸 미리 알고 있었던 사람은 없었을 것이다.

이처럼 길모퉁이를 돌아서면 죽음을 마주치게 되는 날이 내일일지, 1년 후일지, 아니면 10년 후일지는 아무도 알 수 없으므로 언제 닥칠지 모를 자신의 죽음에 대해 평소에 늘 성찰하고 준비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모두 그 문제에

대해서는 귀를 막고 눈을 감은 채 매일 정신없이 바쁘게 살아간다.

수년 전 한 일간 신문에서 본 기사인데, 어느 재벌 그룹의 명예 회장이 고령의 나이에 죽음이 임박해 오자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에 대한 궁금증이 생겨서 비서들과 주변의 여러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했다고 한다. 이 분이 만족할 만한 대답을 얻고 세상을 떠났는지에 대해서는 그 기사에 없었으나, 아마도 평소에 돈과 명예만 추구하지 말고 죽음 문제에도 관심을 가졌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한 걸 후회하지 않았을까 생각해 본다.

로마의 철학자인 키케로는 “지혜로운 사람에게는 삶 전체가 죽음에 대한 준비이다”라고 말한 바 있다.

김명민과 하지원이 주연한 영화 <내 사랑 내 곁에>³는 루게릭병에 걸린 주인공이 점차 사지가 마비되면서 맞게 되는 임종을 잘 그리고 있다(Fig. 1). 주인공이 투병 중 알게 된 여자 장례지도사는 바람직한 죽음 문화의 정착을 위해 입관체험 행사를 열면서 경로당 노인들에게 관 속에 들어가 볼 것을 권유하지만, “이게 지금 나보고 죽어보라는 거야, 뭐야? 노인네들 모아놓고 희롱하는 거야? 뭐야 도대체?”하는 폭언과 함께 폭행까지 당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에 대해 보이는 반응은 무관심과 부정, 회피, 그리고 혐오인 경우가 많다. 몸이 건강할 때, 좋은 죽음이란 어떤 것이며 자신의 죽음을 어떻게 맞이할 것인가 하는 문제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사는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인 것 같다. 종교학자인 이화여대의 최준식 교수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람은 평소에 죽음에 대해 완전히 방치된 상태로 있다가 본인이나 가족의 죽음이 닥치면 벌렁 나자빠진다고 한다.

그런데 죽음에 대한 태도는 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은 모양이다. 줄리엣 비노쉬가 딸로 출연한 프랑스 영화 <여름의 조각들 Summer Hours>⁴은, 어머니의 75세 생신을 축하하기 위해 두 아들과 딸, 그리고 손자손녀들이 모이는 장면으로 시작된다. 어머니는 언제 닥치게 될지 모를 자신의 죽음에 대비하려고 장남에게 유품의 정리와 인계에 대해 얘기하지만, 죽음에 대해 언급하는 것조차 불편하게 받아들이는 장남은 강한 거부감을 보이며 어머니의 얘기를 듣는 둥 마는 등 넘겨 버린다. 생일 잔치가 끝나고 몇 개월 후 다시 만나자는 약속과 함께 다들 떠난 후 혼자 남겨진 어머니는 오랜 세월 옆에서 자신을 돌봐 준 가사도우미에게 쓸쓸하게 읊조린다.

“죽는 얘기… 당연히 할 말인데… 내가 떠날 땐 많은 것들이 함께 떠날 거야. 기억들, 비밀들… 사랑하는 모든 것들을 언젠가는 떠나보내야 해.”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어머니의 부고를 듣고 달려온 장



Fig. 1. “Closer to Heaven (film)”. Korea, 2009.³

남은 묘 자리를 둘러보고 돌아오는 길에, 차를 세운 채 흐느껴 운다. 몇 번이고 더 생일잔치를 해드리게 될 줄 알았지만, 영영 그런 날은 오지 않게 된 것이다. 부모가 자식에게 죽음 준비를 얘기하나 자식이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을 이 영화를 통해 엿볼 수 있다.

한편, 한 웰다잉 책을 읽고 인터넷 서점 감상평에 글을 올린 어느 독자의 이야기는 위와 정반대의 상황을 말해 준다. “고혈압에 의한 합병증으로 어느 날 갑자기 장애인이 되셔서 불편한 몸으로 살아가시는 아버지께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이제는 미리 유언장도 작성해 놓으시고 마음의 준비도 하시라고 말씀드리면 벼룩 화를 내시곤 한다. 이 책을 읽고 아버지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으시기를 마음속으로 기도해 본다.”

얼마 전부터는 사람들이 자신의 집이 아닌 큰 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는 경우가 많아졌는데, 이것은 죽음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의 변화가 그대로 반영된 것이다. 수십 년 전만 하더라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죽음을 손자와 손녀가 다지켜보고, 세상을 떠나는 가족의 마지막 삶을 가족 구성원이 옆에서 보살피는 등, 죽음이 일상사에 포함되어 있었다.

미국의 사진작가 유진 스미스의 1950년작 <Spanish Village>에서는, 가족과 가까운 친지들에 둘러싸인 채 임종을 맞는 노인의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이 사진은 수십 년간 같이 살아온 가족과 격리된 채 대형병원의 중환자실에서 외롭게 삶의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세상을 떠나는 현대인의 모습과 크게 대조된다.

1347년 유럽 전역을 휩쓸었던 흑사병으로 인해 7,500만 명, 그러니까 당시 유럽 인구의 1/4이 사망했다. 이 때는 교회에서도 죽어가는 사람이 하도 많아 집집마다 일일이 다 성직자를 보내줄 수가 없게 되었다. 이에 좋은 죽음을 맞는 법을 각자 익히라는 의도에서 15세기에 윌리엄 캐스턴이라는 출판업자가 목판으로 책을 찍어 내는데, 이 때 붙여진 책의 이름이 <죽음의 기술>⁵이다. 또한 전염병 등에 의한 죽음이 흔했기 때문에 중세 유럽에서는 “너도 언젠가는 죽는 것을 기억하라”는 뜻의 “메멘토 모리” 사상이 유행했다.

이러던 분위기가 20세기에 들어서면서, 과학이 발달하고 유물론이 우세해지며 생명연장 의료기술이 발달하게 됨에 따라, 죽음을 터부시하는 방향으로 흐르게 된다.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와 맞물려, 의료진도 죽음을 삶을 마무리하고 정리하는 중요한 한 단계로 보지 않고, 의료의 패배나 실패로 보는 경향이 짙어지게 되었다. 환자와 가족 모두에게 고통만을 주게 되는 무의미한 연명치료에 환자의 가족이나 의료진이 매달리는 것도 이러한 가치관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보이는 증상으로는, 소변 배출량이 감소하고, 호흡변화와 함께 가래 끓는 소리가 나며, 혈액 순환장애로 푸른빛이나 자주빛 반점이 나타난다. 또 떨림, 진전,

발작, 근육경련이나 정신착란 등의 여러 증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런데 병원에서는 임종이 임박한 환자가 이 같은 발작 증세를 보일 경우, 뇌 MRI 같은 정밀 검사를 한다거나 간질을 억제하는 주사약을 투여하는 일이 종종 생긴다. 이처럼 적절하지 않은 일이 생기는 이유는, 병원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치료를 해야 하기 때문이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경우 종종 의료진이 살인죄로 환자의 가족들에게 고소당하는 일이 벌어지기 때문이다. 오랫동안 옆에서 간병을 해 온 가족들은 상황을 다 파악하고 있으나, 평소에 얼굴 한 번 비치지 않던 가족이 갑자기 나타나 큰 소리를 치거나 의료진을 위협하는 일이 심심치 않게 일어난다.

3. 죽음은 과연 재수없고 혐오스러운 일인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죽음에 대하여 말하거나 죽음과 관련된 단어를 보거나 듣는 것조차도 재수없다고 하여 꺼리는 경우가 많다. 그런데 과연 죽음이 그렇게 잘 피하기만 하면 자신과는 무관해질 수 있는 일일까?

철학을 전공한 유호종 박사는⁶ <죽음에게 삶을 묻다>라는 책에서, 죽음을 뚱으로 볼 것인가 또는 된장으로 볼 것인가에 따라 죽음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달라진다는 점을 얘기하고 있다. 둘의 공통점은 그 냄새가 몹시 이상하다는 점이다. 마음 수양을 아무리 오래 했어도 뚩을 한 숟가락 퍼서 입에 넣고 구수하다고 생각할 수는 없기에, 만일 죽음이 뚩과 같은 것이라면, 그 날이 오기 전까지는 절대로 생각을 하지 않고 지내는 것이 상책일 것이다. 그러나 된장이 처음 냄새는 고약 하지만 찌개를 해서 먹어보면 아주 맛있는 음식이라는 것을 알게 되듯이, 죽음이 된장과 같은 것일 가능성이 없겠는가 하고 저자는 묻는다. 나의 임상 경험으로 볼 때, 말기암으로 인



Fig. 2. "Hereafter (film)." USA, 2012.⁷

한 극심한 통증으로 괴로운 나날을 보내다가도 임종 직전과 후에는 얼굴에 평화로운 표정이 깃드는 것을 보면, 죽음은 끊 보다는 된장일 가능성이 더 많아 보인다.

또 많은 사람들은 죽음이 TV 리모콘의 전원 스위치가 눌려져 화면이 깜깜해진 상태와 같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게 아니고 다른 케이블 TV 버튼이 눌러져 다른 채널로 들어가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자고 저자는 제안한다.⁶

또는 집이나 건물 전체가 정전이 되어 칠흑같이 깜깜해지는 상태로 죽음을 이해하는 사람도 주위에는 상당히 많은데, 다음에 소개하는 영화 <히어애프터 Hereafter>⁷의 이 장면에서도 그런 생각이 여실히 드러난다(Fig. 2). 인도네시아로 휴가를 갔다가 쓰나미에 휩쓸려 심장과 호흡이 멎었다가 사람들에 의해 구조된 후 심폐소생술로 되살아난 여주인공이 남자 친구와 나누는 대화이다.

(여주인공) “물어 볼 게 있어,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남자친구) “이상한 질문이네. 죽으면 그냥 불이 꺼지는 거지. 왜?”

(여주인공) “그냥 그거야? 꺼지는 것?”

(남자친구) “완전히 꺼지지. 플러그가 빠지는 거야. 영원한 공허겠지.”

(여주인공) “뭔가 존재할 순 없을까? 내세 말이야.”

(남자친구) “없을 거야. 그런 게 있다면 지금쯤 누군가 발견했겠지. 증거가 있을 거야. 그런데 이 좋은 자리에서 그런 것들만 물어볼 거야?”

4. 죽음은 꽉 막힌 벽인가, 열린 문인가?

한편, 죽음을 꽉 막힌 벽으로 여길 것인지 아니면 벽 한편에 나 있는 문으로 여길 것인지에 따라, 삶을 살아가는 태도와 방식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일본 영화 <굿'바이 good & bye>⁸는, 오케스트라의 첼로 연주자인 주인공이 악단이 갑자기 해체되는 바람에 실직한 후 고향에 내려가 일자리를 찾던 중, 여행 도우미를 구한다는 광고를 보고 찾아간 곳이 사실은 ‘영원한 여행’ 도우미, 즉 시신을 염습해 입관하는 일을 하는 곳이었고, 보수를 후하게 줄 테니 함께 일하자는 사장의 제안을 영겁결에 받아들인 후 염습사로서 겪게 되는 여러 에피소드들을 가슴 뭉클한 감동과 함께 유머러스하게 그리고 있다(Fig. 3).

건물을 헐고 큰 빌딩을 짓자고 폐를 쓰는 아들의 성화에도 오랜 단골손님들의 신의를 저버릴 수 없다며 변함없이 목욕탕을 운영해 오던, 주인공의 어릴 적 친구 어머니가 갑작스럽게 사망한다. 주인공이 경건하고도 정성을 다한 염습을 마친 후 시신은 화장터의 화장로로 옮겨지는데, 목욕탕의 수십 년 단골손님이자 고인의 친구이며 오랜 세월 화장로의 불을 지피는 일을 해 온 노인은, 뒤늦은 후회로 흐느껴 우는 고인의 아들에

게 슬픔을 누르며 이야기한다.

“여기 화장터에서 오래 일하면서 알게 됐지. 죽음은 문이야. 죽는다는 건 끝이 아니야. 죽음을 통해서 나가서 다음 세상으로 향하는 거지. 난 문지기로서 많은 사람을 배웅했지.”

오랜 경험에서 체득한 노인의 시각처럼, 죽음을 문으로 보는 죽음관은 우리의 일상생활에 긍정적이고도 심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미국에서 발간된 방대한 양의 죽음학 책 <The Last Dance; Encountering Death and Dying (생의 마지막 춤: 죽음, 죽어감과 대면하기)>⁹의 서문에서도, 죽음을 벽으로 볼 것인지 문으로 볼 것인지 하는 관점에 대해 질문을 던지고 있다.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이자 분석심리학을 창시한 칼 구스타브 용은 그의 수제자였던 폰 프란츠 여사를 통해 “죽음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알 수 없는 세계로 가는 것이다”라는 말을 남겼다. 또한 용 자신도 생전에 썼던 편지에서, “죽음의 저편에서 일어나는 일은 말할 수 없이 위대해서 우리의 상상이나 감정이 제대로 파악하기조차 어렵다”라고 했다.¹⁰

한편, 중세의 바니타스 그림 등을 보면 당시 사람들이 느꼈을 삶의 허무함과 덧없음을 여실히 엿볼 수 있는데, 수천 년 동안 인류가 지녀온 죽음에 대한 이러한 공포를 극복할 수 있는 길은 여전히 없는 것일까? 종교적 교리나 문화적 전통에 근거한 믿음이 아니라, 사람이 죽을 때 실제로 어떤 일을 겪는지 알 수만 있다면 이러한 두려움은 상당 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5. 의학연구로서의 근사체험

1) 근사체험 연구의 효시

그런데 이에 대한 단서가 아이러니하게도, 물질을 중시하



Fig. 3. “Departure (film)”. Japan, 2008.⁸

는 현대과학의 발달과 더불어 의학에서의 치료 기술이 발전하면서 1970년대 중반부터 조금씩 드러나기 시작했다. 심장과 호흡이 멎은 사람을 되살리는 심폐소생술이 발전하게 되면서, 과거에는 죽어서 더 이상 말이 없었을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일이 생겼고, 이들 중 일부가 자신의 심장이 멎어있는 동안의 경험인 근사체험 혹은 임사체험(near-death experience)을 보고하기 시작했다.

이에 관한 연구의 물꼬를 튼 사람은 미국의 정신과 의사인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이다. 그는 원래 철학과 심리학을 전공한 후 대학에서 철학을 가르치던 교수였는데, 이런 체험을 한 주위 사람들을 여럿 만나게 되면서 이를 본격적으로 연구하기 위해 의과대학에 들어갔고, 정신과 의사가 되어 근사체험자 150명을 8년간에 걸쳐 면담한 후 1975년에 낸 책이 <다시 산다는 것 Life after Life>¹¹이다.

2) 많은 임상경험을 통해 관찰된 근사체험

스위스 출신의 정신과 의사였던 엘리자베스 쿠블러 로스 박사는 수많은 어린이 환자의 임종을 지키면서 관찰한 공통된 현상과 그 외에 여러 사람의 근사체험에 대한 수십 년간의 경험을 기록한 저서 <사후생(死後生) On life after death>에서 죽음과 임종에 관하여 이야기한다. <사후생>은 한국죽음학회 회장을 맡고 있는 이화여대 최준식 교수(한국학)가 미국 한 대학서점에서 발견하고 번역해서 1996년 우리나라에 소개한 책인데, 절판되었다가 2009년 1월 개정판이 나왔다.¹²

로스 박사는 우리나라에서는 <인생수업>, <상실수업>, <생의 수레바퀴>라는 베스트셀러의 작가이기도 한데, 그녀가 제창한 ‘죽음을 받아들이는 다섯 단계’는 유명한 이론으로 우리나라에도 잘 알려져 있으며, 미국의 시사 주간지인 <타임 TIME>지에서는 20세기 100대 사상가 중의 한 사람으로 선정하기도 했다.

세계적으로 죽음학의 효시로 알려져 있는 그녀는 2004년 타계했는데, 그녀의 장례식에서 사회자의 안내에 따라 장례식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이 들고있던 봉투를 열어 그 속에 들어 있던 형형색색의 나비들을 일제히 날려 보냈다는 유명한 일화는, 생전에 그녀가 갖고 있던 죽음에 대한 생각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

평소 로스 박사는 고치벌레 형태로 있다가 뒤집으면 날개가 달린 아름다운 나비로 변하는 형겼인형을 갖고 다녔는데, 죽어가는 어린이 환자들을 돌볼 때면 늘 이 인형을 통해 비유적으로 죽음을 설명해 주면서 임종이 임박한 어린이들을 위로 했다고 한다.

로스 박사가 일관되게 이러한 주장을 했던 것은, 자신의 오랜 임상경험 때문이었다. 수많은 환자의 임종을 지켜보면서 관찰한 삶의 종말 체험과 근사체험을 통해 추출해 낸 결론이었던 것이다. 질병이나 사고로 심장이 멎고 호흡이 멈추어 사

망 선고를 받은 뒤 심폐소생술로 회생한 사람의 일부가 하는 체험이 임사(근사)체험이다. 로스 박사는 이러한 체험이 환자의 연령, 성별, 인종, 종교의 유무나 종류에 무관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면서, 다음과 같은 일관된 생각을 펼쳤다.

“인간의 육체는 영원불멸의 자아를 둘러싸고 있는 껌질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죽음은 존재하지 않고 다른 차원으로의 이동일 뿐이다.”¹²

<사후생>에 소개된 근사체험의 한 사례를 소개한다. 어떤 원인으로 심장과 호흡이 정지해 사망 판정을 받은 뒤 심폐소생술로 회생한 어린이가 자신이 죽어있던 동안 경험한 것을 어머니에게 이야기한다. “너무 아름다운 경험을 했기 때문에 되돌아오고 싶지 않았어요. 그곳에는 모든 것을 감싸는 포근함과 놀라운 사랑, 그것을 실어나르는 빛이 있었어요. 게다가 오빠가 있어서 자상하게 잘 대해줬어요. 그런데 나는 오빠가 없잖아요?” 아이의 이 말에 어머니는 울기 시작하면서 진실을 얘기해 준다. “한 번도 얘기를 못해 줘 미안하구나. 사실은 네가 태어나기 3개월 전 죽은 네 오빠가 있었단다.” 이 아이는 자신의 오빠가 있었다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가 죽어있던 짧은 순간에 오빠를 만나게 된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근사체험에 대한 회의론자들이 얘기하는 환상이나 환각, 꿈 등으로는 도저히 설명되지 않는다.

3) 영화 속의 근사체험

2011년 초 상영되었던 <히어애프터 Hereafter>⁷는 ‘지금부터는, 장래, 미래, 내세’라는 뜻을 갖고 있는데, 올해 나이 82세의 클린트 이스트우드가 감독을 했고 42세의 맷 데이먼과 프랑스 여배우 세실 드 프랑스가 주연한 영화이다. 인기 절정의 앵커우먼 마리 르레이이는 인도네시아로 휴가를 갔다가 때마침 몰려온 쓰나미에 휩쓸려 죽었다가 사람들에게 구조된 후 심폐소생술을 받게 되는데, 아무리 해도 반응이 없자 사람들은 포기를 했으나 잠시 후 극적으로 되살아난다. 심장과 호흡이 멎어있던 그 짧은 시간 동안 그녀는 어떤 체험을 하는데, 자신이 겪은 이 체험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 이곳 저곳을 수소문하다가 한 호스피스 병원을 찾아가게 된다. 거기서 의사 클라우디아 루소로부터 그녀가 겪은 것이 적지 않은 사람들이 경험하는 근사체험(임사체험)이었다는 얘기를 듣게 되고, 루소가 수년간 모아 온 근사체험 자료를 건네받으며 대화를 나눈다.

(마리) “제가 본 환각들에 대해 얘기하고 싶어요. 아주 평온한 감각이었어요. 모든 게 조용했죠. 온통 어둠 뿐이었고요. 그때 어떤 빛이 제 시선을 끌었어요. 부드러운 바람소리를 들었죠.”

(루소) “무중력 상태처럼 느꼈고, 360도 시각을 체험했죠?”

(마리) “맞아요.”

(루소) “시간의 흐름이나 동작을 못 느꼈고요? 하지만 모든 걸 지각했죠?”

(마리) “바로 그거예요.”

(루소) “나는 과학자이자 무신론자이기에 그런 것들에 마음을 닫았었죠. 내세라든가 임사체험 같은 거요. 밝은 빛이나 애덴 같은 정원 따위가 보이는 이유는 문화적 배경 때문이라는 남들 생각에 동의했어요. 하지만 25년간 호스피스에서 일하며, 죽음을 선고받았으나 기적적으로 살아난 사람들을 많이 봤어요. 그들의 체험담이 놀랍도록 비슷한 걸 보면, 그냥 우연일 수가 없죠. 게다가 그들이 이런 체험을 할 때는 뇌가 새 이미지를 만들 수 없을 때죠. 반대자들도 동의해요.”

(마리) “그럼 제가 정말 뭔가를 체험한 걸까요?”

(루소) “그럼요. 죽음을 체험한 듯해요.”

(루소) “이 자료들에 다 있어요. 그런데 나와 같은 여정을 밟게 된다면 쉽지 않을 거예요. 고독한 싸움이죠. 사람들이 비이성적으로 반응해요. 심지어 적대적이에요. 하지만 증거는 반박할 수 없죠. 나도 시도해 봤어요. 그런데 마리같은 사람이라면, 그 지위와 영향력이라면 변화를 불러올 수 있을 거예요. 그럼 좋겠어요. 행운을 빌어요.”

주인공 마리는 이 자료를 토대로 책을 완성하지만 어느 출판사에서도 출간하려고 하지 않자, “우리들이 죽어서 가게 될 곳이고 죽어서 경험하게 될 일들인데, 우리 모두의 일인데.... 어쩌면 모두들 그렇게 피하는지...”라고 탄식한다.

4) 근사체험에 대한 과학자와 의사들의 반응

심장박동이 멈추어 뇌로 피가 흘러가지 않으면 10-20초 후부터는 뇌파가 기록되지 않는다. 즉 뇌의 활동이 없다. 이때 기억이나 체험같은 것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많은 과학자와 의사들의 입장이다. 왜냐하면 우리의 의식은 뇌에 국한되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들은 간질에 대한 치료로 뇌수술을 할 경우 뇌의 측두엽에 전기 자극을 가하면 환자가 빛같은 것을 보기도 하고, 저산소증이나 마취제, 환각제를 투여할 경우에도 비슷한 경험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근사체험은 뇌가 헷갈리는 현상일 뿐이라고 일축하곤 한다.

그러나 근사체험을 전문적으로 오래 연구한 학자들은 견해를 달리한다. 약물이나 물리적 자극에 의한 경우에는 기억이 조각나 일정치 않고 정리가 되어있지 않으며, 생의 회고가 동반되지도 않는다. 또한 근사체험 후 일어나는 삶의 심대한 변화가 없고,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어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환각제로 인한 경우에는 공포나 기괴한 체험이 경우가 많은 점을 들어, 근사체험은 실제로 일어나는 현상이라고 반박한다.

근사체험 혹은 임사체험을 지칭하는 *near-death experience*라는 용어는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가 처음으로 만들어 사용했다.¹¹ 일시적인 죽음의 체험이라고도 하고, 최근에는 사실상의 죽음의 체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심장이 멈추고 호흡이 정지하며 동공반사가 없어 사망의 정의에 들어맞기 때문이다. 심폐소생술로 회생한 모든 사람이 다 경험하는 것은 아니고, 10-25%에서 체험하게 된다. 체외이탈을 해서 자신의 육체를 바라보게 되는 것도 중요한 체험요소 중의 하나이다.

1500년경 네덜란드의 화가 히에로니무스 보슈가 그린 <천국으로의 승천>에는 근사체험의 여러 요소 중 하나인 터널을 통과하여 빛을 만나는 장면이 잘 묘사되어 있다.

레이먼드 무디 주니어의 근사체험에 관한 연구가 발표된 이래로, 현재는 세계적으로 수천 건 이상의 근사체험 사례들이 축적되어 있다. 인간의 의식은 반드시 뇌에 국한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반증하는 자료라고 할 수 있다.

5) 여러 병원의 다기관 임상연구를 통해 밝혀진 근사체험

네덜란드의 여러 병원에서 많은 근사체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2001년 저명한 의학학술지인 *Lancet*에 실렸다.¹² *Lancet*은 1823년 영국에서 창간된 이후로 발간역사가 189년이나 된 전통있고 권위있는 학술지이다. 학술지의 영향력을 나타내는 지표인 Impact Factor가 15.3으로 전세계에서 발간되는 107종의 의학학술지 중 3위를 차지한 바 있다. 과학 분야에서 유명한 *Nature*나 *Science*에 비교된다고 할 수 있어서, 국내의 의료기관에서 연구한 결과가 이 학술지에 실리면 일간지에 대서특필되기도 한다.

이 저명한 학술지에서, 네덜란드의 연구자들은 여러 병원에서 심폐소생술로 다시 살아난 344명을 조사했더니 18%인 62명이 근사체험을 했다는 사실을 발표했다. 열 가지의 체험요소는, 자신이 죽었다는 인식(50%), 긍정적인 감정(56%), 체외이탈 경험(24%), 터널을 통과함(31%), 밝은 빛과의 교신(23%), 색깔을 관찰함(23%), 천상의 풍경을 관찰함(29%), 이미 세상을 떠난 가족과 친지와 만남(32%), 자신의 생을 회고함(13%), 삶과 죽음의 경계를 인지함(8%)이다.

게다가 이 연구는 근사체험이 체험자들의 삶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를 2년 뒤와 8년 뒤까지 조사하는 전향적인 연구를 했는데, 병원에 있던 의무기록을 사건이 일어난 한참 후에 찾아서 하는 후향적인 연구가 여러가지 오류가 개입될 가능성 이 많은 데 비하여, 미리 철저한 계획서를 작성해 놓고 시작하는 이러한 전향적인 연구는 한층 더 신뢰할 만하다.

이 연구에서는 근사체험자 23명과, 소생하기는 했지만 근사체험을 하지 않은 15명을 비교하였는데, 무경험자에 비하여 근사체험자는 다른 사람에 대해 더 공감과 이해를 하게 되고, 인생의 목적을 더 잘 이해하며, 영적인 문제에 더 관심을 가지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큰 폭으로 감소하고, 사후생

에 대한 믿음과 일상사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크게 증가했다. 몇 분 밖에 안 되는 짧은 순간의 체험이 8년 뒤까지도 큰 영향을 준 것이다.

6) 방송매체에서 다른 근사체험

영국의 BBC 방송에서 제작한 근사체험에 관한 다큐멘터리¹⁴에는 한 시각장애인의 체험이 소개되어 있다. 태어날 때부터 앞을 볼 수 없었던 선천성 시각장애인인데, 빛이며 그림자며 그 어느 것도 본 적이 없고, 꿈에서도 맛, 감각, 소리, 냄새는 있으나 시각적인 이미지는 나타나지 않는다고 한다. 20살 때 교통사고로 심한 부상을 입고 병원의 응급실에서 치료를 받다가, 심장이 정지하고 호흡이 멎어 심폐소생술을 받던 중 체외이탈을 하게 된다.

“기억나는 건 정신을 잃고 병원에 실려갔을 때 처치하는 과정을 전부 지켜봤던 일이에요. 두려웠어요. 앞이 보인 적이 없어서 보는 것에 익숙지가 않았거든요. 그래서 잔뜩 겁을 먹었죠. 그러다 결혼반지와 머리모양을 보는 순간 ‘저건 나잖아? 내가 죽은 건가?’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응급실 의사들이 제 심장이 멈췄다고 외치며 필사적으로 애를 쓰는 동안 몸에서 분리되는 느낌이 들었고, ‘왜들 저렇게 난리인가?’하면서 나가야겠다고 생각했죠. 그 순간 천장을 통해 밖으로 나갔어요, 아무렇지도 않게요. 부딪힐 걱정도 없고 몸이 자유로워서 좋았어요. 갈 곳이 정해져 있었죠. 풍경소리가 들렸는데 너무나 아름다운 소리였어요. 낮은 톤에서 높은 톤까지 다양한 소리를 냈죠. 그곳엔 나무와 새, 그리고 사람이 몇 명 있었는데 그들의 몸은 놀랍게도 빛나고 있었죠. 너무나 아름다운 광경에 완전히 압도당했어요. 그 전엔 빛이 어떤 건지 상상도 못 했거든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하면 가슴이 벅차요. 그 동안 눈이 안 보여 궁금했던 모든 걸 해소할 수 있었으니까요. 그 곳엔 제가 알고 싶었던 것들로 가득했어요. 몸 안으로 다시 돌아오자 극심한 고통이 느껴졌고 몸이 무겁고 굉장히 아팠어요.”

이 사례는 뇌가 시각적인 정보를 제공하지 않아도 의식은 활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다시 말해 인간은 육체인 뇌가 없이 의식만으로도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2011년 3월 18일 방영된 KBS 금요기획 “죽음에 관한 세 가지 시선”¹⁵ 중 첫 번째인 “삶과 죽음의 경계를 말하다”에서는 근사체험의 실제 경험자를 소개하고 선진국에서의 임상연구 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체로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는 직종인, 미국의 뉴햄프셔에 살고 있는 토니 서코리아라는 의사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그의 성격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을 겪게 된다.

“1994년 저는 가족 모임에 있었습니다. 폭풍이 다가오고 있었는데 불행히도 전 알지 못했습니다. 공중전화 부스에서 전화수화기를 얼굴 가까이 들고 있었는데 제가 있던 전화 부

스가 번개를 맞았어요. 커다란 섬광이 수화기에서 뻗어 나오더니 제 얼굴을 내리쳤어요. 그 뒤로는 의사로서의 이성으로는 이해하기 힘든 경험을 하게 됐습니다. 장모님이 저를 향해 달려오더니 저를 그냥 통과해서 지나치더군요. 그때 저는 정말로 이상한 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장모님이 어디로 가는지 보려고 뒤를 돌아봤는데 바닥에 제가 누워 있는 것이 보였어요. ‘이런, 내가 죽었잖아’라고 생각했죠. 한 간호사가 제 몸에 심폐소생술을 시도했습니다. 저는 그들을 보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지만, 그들은 저를 보거나 제 말을 듣지 못했어요. 제가 그 사람들을 필사적으로 부르고 있었는데도 말이죠.”

이 일을 겪은 이후로 토니 서코리아는 죽음에 대해 전과는 전혀 다른 생각을 하게 된다.

“심장이 멈추고 뇌 활동이 멈추면 그것이 죽음이라는 것에 모두들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분명히 이런 죽음의 정의가 바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일단 현재의 죽음에 대한 정의를 받아들여야 하겠지만, 저는 우리가 그 정의에 계속 도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죽음에 대한 경험과, 무엇이 죽음인지 또는 죽음이 아닌지에 대해서 더 배우면서 말이죠.”

또 이 다큐멘터리에서 소개하는 어웨어 프로젝트(AWARE project)는, 체외이탈현상을 증명하기 위해 미국과 유럽의 25개 의료기관에서 3년간 15,0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연구인데, 연구진은 체외이탈현상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심장 정지가 자주 발생하는 응급실이나 중환자실에서 아래에서는 절대로 볼 수 없는 천장 가까운 곳 선반 위에 사진과 기사를 올려놓고 환자가 깨어나길 기다린다.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들의 증언에 의하면 그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동안 평화로운 마음으로 천장에서 아래의 모든 풍경을 내려다 볼 수 있었다고 하므로, 심장 정지를 경험한 환자가 깨어난 후 이 사진과 기사를 기억한다면 죽어있는 동안 의식이 활동하는 것을 인정할 수 있게 된다고, 미국 뉴욕 웨일코네일 메디컬센터 응급의학과 의사인 샘 파니아 박사는 이야기한다.¹⁶

“수많은 연구사례를 통해 밝혀진 사실 중 가장 흥미로운 것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 중 최소한 10%에서 20%는 그들이 죽은 후, 즉 뇌 활동이 멈췄을 때에도 의식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죽음을 다르게 생각해야 합니다. 어쩌면 죽음은 우리의 의식에서 일어나는 현상과 그 과정을 통해 정의되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 증거를 통해, 사망 후에도 의식이 지속됨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 시간이 어느 정도인지는 저도 아직 모릅니다. 하지만 이런 연구를 통해 사람의 의식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는지, 시신을 언제 묻어야 하는지와 같은 질문에 대한 해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자신이 심폐소생술로 회생시킨 한 환자를 만났던, 영국 해

머스미스 병원의 수간호사 캔 스피어포인트의 체험도 흥미롭다.¹⁵

“몇 년 전 다른 병원에서 일할 때였습니다. 저에게 심폐소생술을 받고 살아난 환자를 일주일쯤 지나서 만나러 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환자에게 다가가자 그 사람은 저를 아주 분명하게 기억하더군요. 그리고 저에게 ‘안녕하세요?’라고 인사를 했습니다. 저를 어떻게 기억하냐고 물었더니, 자신의 심장이 멎었을 때 저를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의료진들이 어떻게 생겼었는지, 당시에 무엇을 하고 있었는지 상세하게 얘기하기 시작했어요. 그때는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7) 근사체험의 임상적 중요성

의료진이나 환자를 간호하는 사람은 더욱더 이러한 체외이탈이나 근사체험에 대해 알고 있을 필요가 있는데, 그렇지 않을 경우 체험자를 정신이상으로 몰아 위축시킬 위험이 있고, 체험 후에 일어날 수 있는 삶의 심대한 변화를 저해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근사체험은 자살 방지 상담에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사후 세계 존재 유무나 환자의 신앙 유무에 관계없이, 임종에 임박한 환자가 갖게 되는 죽음에 대한 불안과 공포를 덜어줄 수 있는 효과가 있다.^{16,17}

그런데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에 대한 논의는 우리가 사는 3차원보다 높은 차원을 이해하는 것만큼이나 어려운 일일 것이다. 정신세계사 네이버 북카페에 올려진 외국의 한 물리학자가 만든 동영상은 보면, 두 개의 차원, 즉 전후와 좌우만이 존재하는 2차원에 사는 존재들은, 구나 사면체, 육면체와 같은 것들을 이해하지 못한다. 전후좌우가 전부인 줄 알던 평면적인 존재가 어떤 계기로 인해 위와 아래라는 것이 있다는 것을 깨닫는 일은, 우물 안이 전부인 줄 알던 개구리가 우물과는 비교조차 할 수 없는 장엄한 바다라는 것이 우물 밖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는 사건에 비유할 수 있을 것이다.

“대체로 사람들은 모르는 것, 알려지지 않은 것을 두려워하는데, 만일 우리가 알고 있는 것만을 볼 수 있다면, 새로운 것들과 알려지지 않은 것들을 사람들은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이제까지 전혀 몰랐던 다른 차원을 이해하려면, 알고하고 하는 용기가 필요하다… 재미있지 않은가? 우리를 가장 두렵게 하는 것이 우리를 가장 가슴 뛰게 만든다는 것이다.”

6. 현대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죽음관

필자는 2008년에 서울 시내 어느 구청에서 하는 ‘웰다잉을 위한 행복한 삶, 아름다운 마무리 준비교실’의 5회 강좌 중 한 번의 강의를 할 기회가 있었다. 거기서 담당 공무원을 만나 강좌를 개설하게 된 경위를 들었다. 처음엔 강좌 제목에 죽음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었는데, 상부에서 결재를 해주지 않아 몹시 애를 먹다가, 후에 죽음이란 단어를 빼고 웰다잉으로

바꿔 넣었더니 그제야 결재 도장을 찍어주어 계획했던 강좌를 무사히 마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이것만 보아도 우리나라 사람들이 죽음이란 단어를 얼마나 혐오스러워하고 기피하는지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우리는 여행을 가기 전에 가려는 곳에 대해 인터넷으로 검색해 보기도 하고 관련 책자를 사서 열심히 정보를 얻으려고 한다. 또 떠나기 직전까지 집안을 정돈하고 다른 가족을 위해 이것저것을 챙겨놓거나 단속하고, 자신이 집을 비운 사이 필요한 여러가지 사항을 메모로 남겨놓기도 한다. 하물며 장거리 여행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에로의 여행을 위한 사전준비는 아무리 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¹⁸

철학박사 유후종은, 죽음을 직시한다는 것은 지상에 머물렀던 시선을 돌려 먼 하늘의 별을 바라보는 것과 같다고 얘기한다.⁶ 대학 총장을 지낸 한 명예교수는 우리나라 사람의 대화는 평등하다고 말하는데, 아파트 평수와 자식의 학교 시험 등 수外에는 하는 얘기가 별로 없다는 것이다. 이러한 물질적인 대화에서 벗어나, “사람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 것일까? 저 별 너머에는 누가 살고 있을 것인가? 나는 누구인가?”와 같은 실존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게 되는 계기는 죽음을 대면함으로써 생겨나는 경우가 많다. 사람은 누구나 살아가면서 돈이 필요하고 명예도 추구하는 법이지만, 죽음에 대해 성찰하게 됨으로써 이웃과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와 나눔 그리고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길에 더 가까이 다가서게 된다고 본다.⁶

7. 좋은 죽음을 맞기 위하여

이처럼 죽음과 직면하면서 비로소 삶의 의미를 찾게 되는 대표적인 이야기가 일본영화 <이끼루>¹⁹이다. ‘이끼루’는 ‘살다’, ‘살아 있음’이라는 의미이나, 사실은 죽음에 대한 내용을 달고 있다. <나생문>이라는 영화로 유명한 일본의 故 구로자와 아끼라 감독이 1952년 발표한 영화인데, 죽음학 분야에서는 지금까지도 여전히 중요하게 인용된다. 초연 후 각종 국제영화제에서 50개가 넘는 상을 받았으며, 1997년에는 세계 10대 고전영화로 선정되기도 하였다.

시청의 말단 과장인 주인공은 소화가 안 돼 병원에 가서 검사를 받는데, 위암 말기여서 완치를 위한 수술은 불가능하고 남은 시간이 수개월이라는 청천벽력 같은 이야기를 듣게 된다. 크게 낙심하여 평소에 하지 않던 술과 도박도 잠시 해보지만 마음의 공허감은 채울 수가 없다. 그렇게 실의에 빠져 있던 중, 몇 달 안 남은 자신의 마지막 삶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하나라도 끝마치고 떠나야겠다는 생각에 이르자, 껴져 가던 장자더미에서 반짝 불이 일듯 기운을 차리고는, 책상 위에 산더미처럼 쌓여있는 미결 서류더미에서 마을 주민들의 숙원사업이 담겨진 민원서류 하나를 찾아낸다. 그것은

비만 오면 커다란 물웅덩이로 변하고 파리가 들끓는 마을 한 구석 버려진 공터를 어린이 공원으로 만들어 달라는 진정서였는데, 7개나 되는 부서가 관여된 일인데다 그 누구도 성의껏 추진하려고 하지 않아 전혀 진척이 되지 않았었다. 주인공은 이 일을 직접 나서서 추진해 나간다. 해당되는 여러 부서의 과장이 결재 도장을 찍어줄 때까지 자리를 뜨지 않는 ‘끈끈이’ 작전으로 매달린 결과, 마침내 어린이 공원은 완공되고, 공원 개장 전날 눈 내리는 밤 주인공은 그네에 앉아 나지막하게 노래를 부르다 숨을 거둔다.

주인공이 퇴근길 잠시 멈추어 서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며 “저녁 노을이 이렇게 아름다운 걸 모르고 30년을 살아왔네. 그러나 이제는 시간이 없구나”하고 말하고는 고개를 푹 숙인 채 힘없이 발걸음을 옮기는 장면은 무척 인상적이다.

1970년대부터 일본에서 교수로 재직하며 바람직한 죽음문화의 정착에 힘써 온 독일인 알폰스 데肯 신부는 이 영화에 대해 다음과 같이 평하고 있다. “죽음에 임박하여, 타인에 대한 사랑을 통해 주인공은 기쁨과 만족감을 느꼈고, 죽음에 직면함으로써 비로소 보다 바르게 살 수 있었다.”²⁰

2012년 4월 27일자 조선일보, 윤희영의 “News English”에는 미국의 심리학자가 한 연구가 소개됐다. 사는 게 힘들고 벼겁게 생각되면 공동묘지를 걸어보라는 내용이다. 안 그럴 것 같은데 공동묘지에 가면 삶에 긍정적인 변화가 생겨 자신과 남에 대한 해악을 최소화하는 생각과 자세를 갖게 된다고 한다. 전반적인 인생 목표와 가치의 우선순위를 다시 매기게 되며, 가족에 대한 애틋함이 증가하여 술과 담배를 줄이게 되고 건강을 챙기게 된다고 한다. 다른 사람에 대한 배려심도 증가하여, 묘지 밖에 있는 사람들과 안에 있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들고 있던 노트북을 떨어뜨렸을 때 얼마나 많은 주위 사람들이 도와주는가를 관찰했더니, 묘지 안에 있는 사람들이 40% 더 도와주는 비율이 높았다고 한다. 또한 공동묘지를 정기적으로 산책하는 사람은 낯선 타인에 대한 배려심이 높아, 나그네를 도와주는 비율이 더 높다고 한다. 이는 죽음에 대한 자각이 높아져 인내심, 평등의식, 연민, 감정이입 그리고 평화주의에 대한 동기가 부여되는 것이 아닌가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경우, 서울을 비롯한 대도시에서는 공동묘지를 혐오시설로 여겨 모두 퇴출시켜 버렸기 때문에, 이런 일은 시도해 보기조차 불가능하다. 건축가 승효상 선생은, “우리는 묘지가 일상 가까이에 없어서 도시가 경건하지 못하다”라고 평했는데, 이 견해는 위의 심리학자가 한 연구 결과와 잘 부합된다.

결 론

고생물학과 지질학을 전공한 과학자였던 프랑스의 샤르댕

신부(1881-1955년)는, “우리는 영적 체험을 하는 인간이 아니라 인간이 된 체험을 하는 영적 존재다”라는 말을 남겼다. 나 자신 뿐만 아니라, 카페나 식당의 서빙 도우미, 중국집의 배달원, 청소노동자, 이 모두가 다 고귀한 영혼인 것이다.

천둥과 번개를 하늘의 노여움으로 생각했던 과거에는 이에 대한 불안과 두려움이 엄청났으나 그 실체를 파악한 뒤부터는 공포감을 덜 느꼈듯이, 죽음에 대해 이해하고 나면 그 두려움이 훨씬 줄어드는 것은 물론, 죽음을 내포한 생명의 본질과 의미에 대해 더 깊은 인식에 이르게 될 것이다. 이로써 삶에서 부딪히게 되는 고난과 역경을 영적인 성장의 기회로 껴안게 되고, 주어진 삶을 더욱 더 충만하게 향유하게 되리라 생각한다.

REFERENCES

1. Takashi Minamoto, director. Tokyo tower (film). Japan: Toho Company, 2005.
2. You HS; Institute of Text Interpretation. Spare me, death: Studying philosophy by text. Seoul, Humanist, 2008. 292 p.
3. Park Jin-pyo, director. Closer to heaven (film). Korea: CJ Entertainment, 2009.
4. Olivier Assayas, director. Summer hours (film). France: MK2 Productions, 2008.
5. Fenwick P, Fenwick E. The art of dying. Jung MJ, translator. Seoul: Boogle Books, 2008. 364 p.
6. You HJ. Ask about life to death. Seoul: Sapiens21, 2010. 327 p.
7. Clint Eastwood, director. Hearafter (film). US: Dreamworks SKG, 2012.
8. Yojiro Takita, director. Departures (film). Japan: Shochiku, 2008.
9. DeSpelder LA, Strickland AL. The last dance; Encountering death and dying. 8th ed. New York: McGraw Hill, 2008.
10. Lee BY. Korean shamanism and analytical psychology. Paju: Hangilsa, 2012. 758 p.
11. Moody RA Jr. Life after life. Ju JK, translator. Seoul: Haenggan Publication, 2007. 191 p.
12. Ross EK. On life after death. Choi JS, translator. Seoul: Korea Dialogue Academy, 2009. 210 p.
13. van Lommel P, van Wees R, Meyers V, Elfferich I. Near-death experience in survivors of cardiac arrest: a prospective study in the Netherlands. Lancet 2001;358:2039-2045.
14. BBC. The day I died. UK: BBC, 2004.
15. KBS. Three kinds of attention on the death. Korea: KBS, 2011.
16. Long J, Perry P. After the death. Han SS, translator. Seoul: Amy Factory, 2010. 238 p.
17. Choi JS. Death, another world. Seoul: Dongasia, 2006. 319 p.
18. Korean Society of Death Research. Guidelines of well-dying for Korean. Seoul: Korea Dialogue Academy, 2011. 122 p.
19. Akira Kurosawa, director. Ikiru (film). Japan: Toho Company, 1952.
20. Deeken A. How to cope with the death. Oh JT, translator. Seoul: Goongri Publication, 2002. 250 p.